

Web2.0 표준화 및 서비스



이승운
TTA 웹 PG 의장
ETRI 서비스융합표준연구팀
팀장



웹2.0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인터넷 환경과 이에 따른 이용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보다 차별화되고 확대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IT 산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과거 소수 히트 상품 위주에서 틈새상품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상품의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롱테일' 현상은 2010년 경에는 휴대폰 사용자가 PC사용자의 3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과 유통의 대중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여, 공유, 개방을 표방하며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인터넷 환경을 실현시킴으로서 세상을 바꾸게 될 '웹2.0'은 「외부 역량 확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 등의 산업적 효과를 이끌어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호는 '웹2.0' 서비스의 표준화 및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전략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01

Question

전통적 제조기업들도 웹2.0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 비즈니스와 관련된 동향을 소개해 주신다면..

Answer

최근 웹 기술은 과거 단순한 정보나 콘텐츠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구조화된 정보체계(XML 등)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IT 서비스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향하며 모든 서비스가 융복합 되는 환경에서 웹 기술은 서비스 컨버전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웹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범주를 넘어 1) 웹을 플랫폼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과 2) 웹과 VoIP, IPTV, USN 등 타 IT 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한 융합형 서비스 모델 등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웹의 플랫폼화 또는 OS화의 시도는 이미 구글 등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으며, 웹 기반 오피스(한컴씽크프리 등)로의 발전 등은 향후 패키지 SW 업계의 판도 변화를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웹을 서비스 융합의 글루(접착제)로 활용하는 융합형 IT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웹을 기반으로 기존 통신서비스와 디지털TV 서비스 등이 지능화되고 보다 사용자 중심의 매력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웹2.0에서 대표적인 서비스 기술로 대표되는 오픈API를 통한 매쉬업 서비스는 향후 무궁무진한 웹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웹 비즈니스의 판도 변화는 모바일 환경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웹2.0으로 대변되는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웹 기반 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발전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의 서비스가 제공자 관점에서 기술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고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기업 전략으로 선택하고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02

Question

웹2.0 시대의 대표적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성공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먼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상은 아니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SNS는 온라인 상에서 휴먼 네트워킹(인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그들 간의 정보교류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방식보다 인간중심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온라인 서비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서비스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굳이 웹2.0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SNS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공되어 왔으며, 예전 PC통신 기반의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으로부터 그 기억을 되살려볼 수 있습니다. 웹 기반으로 한정 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아이러브스쿨(iloveschool.co.kr) 서비스를 들 수 있고 최근의 싸이월드(cyworld.com)가 SNS의 대표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SNS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SNS로 발전하려면 단순히 흥미나 재미 중심에서 발전하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발전해야만 보다 생산적이며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의 만남 이후에 새로운 그 무엇을 제공하지 못했던 아이러브스쿨의 실패 사례와 싸이월드의 경쟁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이 아니라 카트라이더라고 회자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SNS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03

Question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기업 및 경제정보, 사회적 통계 정보, 교통정보 등의 공공정보에 웹2.0을 연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정보와 웹2.0을 연계한 표준화 전망은?

Answer

흔히 Government 2.0이라 함은 정부 서비스와 웹 2.0를 결합한 용어로서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웹 2.0 개념과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는 새로운 정부의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Government 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이슈와 기술 및 표준화 이슈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책적 이슈와 관련하여, 공공정보자원의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 등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공공정보의 재이용과 상용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근거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 및 표준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자원의 공개를 위한 Open API 기반의 공공자원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화와 서비스 매쉬업 등을 위한 표준화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활용 차원에서 공공자원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콘텐츠 표준화 등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

Question

정보를 차단하고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웹2.0 정신에 어긋날 것입니다. 웹2.0의 확산으로 인한 개방형 플랫폼 등 IT표준의 현황과 향후 전망은?

Answer

굳이 웹2.0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확산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정보의 독점과 폐쇄는 더 이상 독점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분산은 웹2.0의 중요한 철학이며 시대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의 개방을 넘어서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포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Open API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웹의 플랫폼화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준의 Open API 활용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복잡해지는 웹 기반 Open API간의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표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웹2.0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은 유비쿼터스 웹 환경으로의 진화가 예상되며, 기존 유선 환경을 넘어서 이동통신과 같은 모바일 환경, 홈 네트워킹 환경 그리고 RFID/USN 등과 같은 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하여 발전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융합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표준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표준화 이슈도 단일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넘어서 복합된 형태의 융합 표준화(Converged Standardization)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웹2.0 기반의 환경들이 그러한 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05

Question

개방형 모바일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웹환경 표준 준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개선방향은?

Answer

최근 웹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 등의 단말 기술과 HSDPA, WiBro 등 이동 데이터통신 기술의 발전 등은 모바일 웹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무선 통합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외국에 비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응용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바일 웹 콘텐츠에 대한 비표준의 난립, 이동사마다 다른 브라우저 환경, 종량제 기반의 비싼 요금 그리고 폐쇄적인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환경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바로 올바른 표준의 개발과 보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표준에 기반한 모바일 웹 환경의 제공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유무선 통합 모바일 웹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선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Question

UCC(User Created Content :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될 수 있으며, 웹2.0 기반의 악성코드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보호표준화 대응방향은?

Answer

웹2.0이 개방과 공유 등을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고 UCC 활성화에 따른 미디어의 유통 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웹2.0에서의 정보보호 이슈도 신규 비즈니스 이슈 만큼이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웹2.0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권한의 확대에 따른 클라이언트 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UCC가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를 배포하는 채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웹2.0 서비스 환경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안 위협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도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대표적인 취약점 중 하나는 크로스사이드스크립팅(XSS) 공격인데 이는 CSS 내에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07

Question

정리해보면, Security 2.0으로 대변되는 웹2.0에서의 정보보호 이슈는 AJAX와 같은 웹 기반 UI 기술, Open API 기술, Open ID 기술, UCC 환경 등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취약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관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웹2.0을 넘어 유비쿼터스 웹 환경에서의 보안도 향후 중요한 정보보호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웹2.0이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로 특징지어지듯이 앞으로의 웹 응용은 기기종 디바이스와 기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호 연동되는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다 인텔리전트한 정보보호 기술 및 표준화 이슈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욕구가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2.0으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소비자를 표준화활동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웹 PG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법은?

Answer

웹은 기본적인 속성상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 제공자 환경 모두에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웹2.0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표준화된 웹 접근성은 웹2.0이 지향하는 참여, 개방, 공유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의 현실은 매우 취약하며, 웹 이용시 특정 외국 회사의 브라우저 종속도가 너무 심화되어 있는 등 그 어느나라 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웹2.0의 확산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비용절감, 확장성의 유연성,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TTA PG401 활동에 웹2.0 등을 지향하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표준기술 정보의 교류와 표준화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웹 기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표준개발 활동이 어렵더라도 관련 정보의 공유와 표준화 동향 파악을 위한 간접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TTA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참관인 자격으로 PG 활동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고) TTA PG 401 HomePage:

http://www.tta.or.kr/Home2003/committee/CommitToR.jsp?commit_code=PG401

08

Question

웹2.0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 제정활동은?

Answer

현재 플렉스(FLEX)나 AJAX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나 웹 2.0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 제정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웹서비스와 시맨틱웹 관련하여 상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I 공개와 ECIF에서 상거래를 위한 온톨로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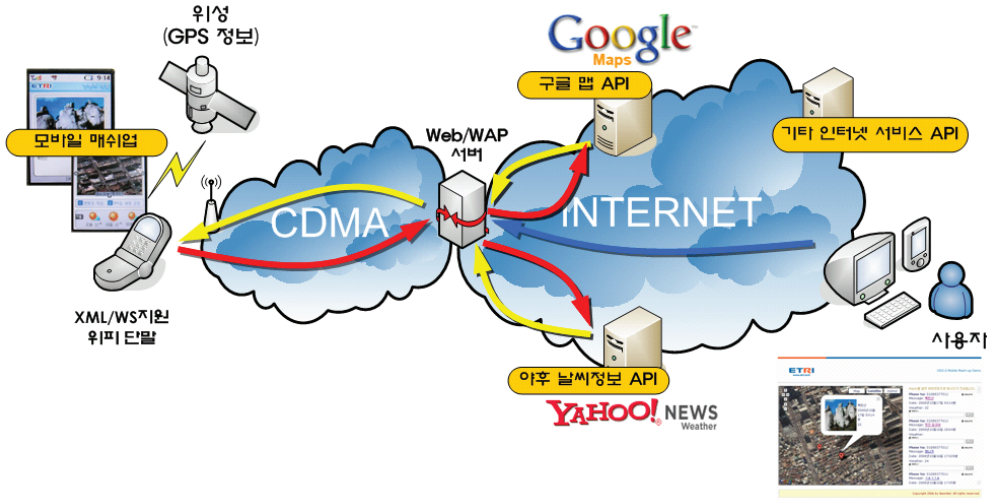
웹2.0의 등장과 함께 각광받기 시작한 모바일 매쉬업 서비스를 위한 위피(무선인터넷 플랫폼)기반의 XML 표준 기술과 모바일 웹서비스 표준기술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TRI에서 개발된 '모바일 매쉬업 응용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세계적으로 매쉬업 응용은 차세대 인터넷 SW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 모바일 환경에서의 매쉬업 응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매쉬업을 위해서는 XML과 웹서비스(REST, XML-RPC, SOAP 등)의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관련하여 저희 ETRI 서비스융합표준연구팀에서는 지난 2006년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표준 개발' 과제의 모바일 웹서비스 표준 개발 과정에서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 기반의 XML 및 웹서비스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위피의 확장 기능으로서 관련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XML 및 모바일 웹서비스 표준 규격의 검증 차원에서 모바일 매쉬업(Mobile Mash-up) 응용으로써 휴대폰의 GPS 및 카메라 기능과 구글맵, 야후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라이프로그(Lifelog)'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라이프 로그' 매쉬업 응용은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구글의 위성사진 위에 현재 날씨 등의 정보를 가져와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정보와 메시지들을 함께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 개념의 모바일 서비스로서, 향후 모바일 분야에서 킬러 응용으로 예측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현재 개발 중인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표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웹2.0 서비스들을, 손쉽게 매쉬업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사진 뿐 아니라 RFID, 음성녹음, 동영상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UCC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도 연계되도록 적용분야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림) ETRI 개발 모바일 매쉬업 사례 : 라이프로그 서비스

10

Question

앞으로 다양한 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용행태에 따라 컴퓨팅 패러다임이라는 기술적 변화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웹2.0에 대응한 표준화 전망과 TTA 웹 PG의 앞으로의 추진 전략은?

Answer

현재 TTA PG401(웹 프로젝트그룹)의 활동도 웹2.0의 출현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표준화 활동 범위(ToR: Terms of Reference)에 웹2.0, 모바일웹, 유비쿼터스 웹 응용 등을 주요 대상 기술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내표준 개발은 물론 W3C 등의 국제표준화 대응 조직으로서의 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AJAX 등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Open API, RSS/ATOM 확장, MobileOK 표준 기술 등은 PG401이 올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핵심 표준화 항목입니다. 앞으로, 웹 기술은 특정 도메인의 기술이 아닌 IT/비IT 전 분야의 응용서비스 기술로 확대 적용될 것이며,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컨버전스 서비스를 실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TTA 웹 PG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수요자 기반의 차세대 웹 관련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타 표준화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웹 기반 컨버전스 서비스 관련 표준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11

Question

웹2.0 활성화를 위해 SW 산업에 표준화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Answer

웹2.0 활성화를 위한다는 표현보다는, 국내 SW 산업발전을 위해 웹2.0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고 표준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SW 시장에서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 위해서는 개방된 표준(Open Standa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굳이 웹2.0을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Answer

여기서 개방된 표준의 범위는 매우 넓을 수 있는데 현안 중심으로 언급하면, 기본적으로는 표준을 지키는 유무선 웹 사이트 개발에 해당되는 웹 접근성 준수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여기에는 ActiveX를 대체하는 표준기반의 기술 및 표준개발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SW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 개발이며, 예를 들면 개별 포털의 독립적인 UGC 및 매쉬업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SW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리치 웹 클라이언트 표준 개발 등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양 조성 차원이며, 두 번째 이슈는 그 토양 위에서 경쟁력있는 SW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XML을 기반으로 하는 ODF(Open Document Format) 등과 같은 문서 관련 표준화 이슈도 특정 포맷의 종속방지와 정부와 민간의 문서포맷 비호환성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웹2.0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인 주요 국제표준기구를 소개 바랍니다.

12

Answer

웹2.0과 관련된 표준화는 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http://www.w3.org>)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된 WG으로는 XML 관련 WG(XML WG, XSL WG 등), HTML 관련 WG(HTML WG, XHTML2 WG 등), 그리고 MWI 관련 WG(MW BP WG, DD WG 등), Rich Web Client 관련 WG(Web API WG 등), Semantic Web 관련 WG(POWDER WG, RDF DA WG 등), Web Services 관련 WG(Semantic WS WG, SA for WSDL WG 등), Ubiquitous Web Application WG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기존의 IT839 전략과 웹2.0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13

Answer

IT839 전략의 성공열쇠 중 하나는 바로 해당되는 핵심 기술들이 이용자 관점에서 융복합된 서비스로 실현되는 것이며, 웹2.0은 바로 그러한 컨버전스 서비스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IT839의 개별 서비스가 단일 서비스 또는 복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때 사용자와의 접점에서 웹2.0 기술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IPTV 표준화에서의 웹2.0 개념의 도입과 접목시도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IPTV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차세대 IPTV 서비스에서 웹2.0 기반의 EPG 확장 기술과 UCC 지원을 위한 표준제안 등을 추진하여 표준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 임베디드 SW,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RFID/USN, 정보보호 기술 등은 웹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웹2.0 관련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4

Question

이미 기존의 IT 관련 서비스들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웹2.0에서 지향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술과 관련 표준은 IT839 서비스의 진보와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웹2.0 서비스와 관련된 TTA 주요 표준을 소개 바랍니다.

Answer

웹2.0과 관련된 주요 표준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 표준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응용 표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표준의 경우 XML, HTML, CSS, XSLT, RDF, SOAP 등에 대한 표준은 이미 PG401(웹 프로젝트그룹)을 통해서 TTA 단체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각각의 추가적인 국제표준화에 따라 후속 버전의 표준에 대한 대응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W3C가 HTML WG을 통해 기존 HTML 표준의 새로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용 표준 관점에서 보면, AJAX 관련 표준인 XMLHttpRequest 객체에 대한 표준, 위젯 관련 표준, 모바일 웹 관련 표준, RSS 관련 표준, OWL 웹 온톨로지 관련 표준 등이 현재 PG401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G401에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세부 표준 목록에 대해서는 TTA PG401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

Question

지난 3월 결성된 '모바일웹2.0 포럼'의 개요와 참여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먼저, 모바일 웹2.0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진 모바일 인프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바일 웹 표준과 비즈니스 개발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기회로 국내 모바일 웹 산업의 부흥기를 유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최근 국내에서 순수 민간주도로 발족된 '모바일 웹2.0 포럼' (<http://www.mw2.or.kr>)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체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바일웹2.0 포럼은 '모바일 웹 기반의 관련 산업 활성화', '국내외 표준·기술 선도', '모바일 웹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 웹 콘텐츠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며, 나아가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웹 환경 마련을 위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멤버로는 SKT, KTF, LGT 등의 이동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제조사, NHN, 다음 등의 포털, 인프라웨어, 지오텔 등의 브라우저사, ETRI, TTA, KIPA, NIDA 등의 유관기관 등 모바일 관련 주요 업체 및 기관이 골고루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럼의 조직을 보면 4개 워킹그룹(응용WG, 콘텐츠WG, 단말정보WG, 시험인증WG)과 1개 태스크포스(모바일OK TF)로 구성되어 모바일 웹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및

16

Question

표준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미 각 워킹그룹별로 두 차례씩의 논의를 통해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차세대 모바일 웹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역할정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OK TF에서는 각 WG와 협력하여 ‘한국형 모바일OK 시범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결과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간 주도의 포럼 활동에 웹2.0과 모바일웹을 지향하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로 하며, 앞으로의 모바일웹 서비스는 월드가든(Walled Garden) 형태가 아닌 유무선 통합 기반의 오픈가든(Open Garden)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기존 유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 모바일웹2.0 포럼 홈페이지: <http://www.mw2.or.kr/>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형식인 UCC는 이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특성상,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적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Answer

최근 웹2.0의 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 중 하나가 UCC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성숙도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적 성공적 사례로 거론하는 미국의 유튜브(YouTube)의 경우도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2%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과도한 UCC 열풍이 불고 있는데, 블루오션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나친 경쟁과 실패 등으로 자칫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UCC의 경우도 직접적인 수익모델 보다는 콘텐츠 유통과정에 비롯되는 광고 등의 간접적인 수익모델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UCC가 비디오 콘텐츠에 해당하는 UGV(User Generated Video)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비디오 뿐만 아니라, 오디오, 픽처, 텍스트 등의 멀티미디어가 모두 해당되므로 UCC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하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야할 세가지 조건인 주인공(character)이 명확해야 하고 주인공들이 참여할 동기(motive)가 분명해야 하며, 이들 간에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구성(plot)이 성립돼야 한다는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UCC 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보다는 UCC 저작권 이슈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2.0의 확산을 위해 UCC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로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블로그 등의 UCC 저작물에 대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보급 확산을 지원하고 UCC에 대한 원활한 구매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TA**